

문학번역 평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상 원
(서울대)

1. 문학번역 평가의 시대가 도래하다

문학번역 평가는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대규모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문학번역 평가가 눈에 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영미문학연구회 번역평가사업단(이하 번역평가사업단)의 『영미 명작, 좋은 번역을 찾아서』이다. 해방 이후부터 연구 종료시점인 2003년 7월(2권의 경우 2005년 8월)까지 출간된 모든 번역본을 대상으로 현황조사를 하여 완역본, 중복 출판본을 제외하고 36개 작품 980본(1권, 2005년)과 35개 작품 488본(2권, 2007년)을 검토본으로 선정한 후 원작의 면수 기준 10% 이상을 대조 분석한 방대한 작업이다. 또 교수신문은 동서양의 고전과 문학작품을 망라하여 2005년 4월부터 2007년 2월까지 총 70회에 걸쳐 고전 번역 비평¹⁾을 연재하였다. 회당 한 작품씩이 다뤄지며

1) 평가와 비평은 구별되어야 하는 개념이나 현재 상황을 보면 모두 평가에 수렴되는 것으로 혼용된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해서는 후반부에 상술할 것이며 선행 연구를 검

1인 혹은 다수의 비평자가 여러 번역본을 비교 분석하는 방식이었다. 그 일차 결과물은 『최고의 고전 번역을 찾아서』(2006)라는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문학번역 평가가 활발해진 것은 반가운 일이다. 어느 분야에나 소통은 필요한 법이다. 주어진 대로의 번역을 독자들이 말없이 소비하던 일방적인 시대가 막을 내린 것이다. 위에서 예로 든 번역평가사업단이나 교수신문은 전문가(해당 분야나 원작자의 전공자)들의 번역 평가이지만 이상원(2006)을 보면 일반 독자들도 출판사나 온라인 서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번역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소통과 상호작용은 발전의 밑거름이다. 이 점에서 문학을 포함한 번역평가의 가치는 두말할 나위 없이 대단히 크다.

하지만 현재 이루어지는 번역 평가를 지켜보면서 아쉬움도 느끼게 된다. 압도적인 다수의 번역 평가가 번역본이 가진 오류와 단점을 파헤치는 데 치중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교수신문의 논쟁 서평 시리즈²⁾에서는 비평 내용에 동의하지 못하는 번역자의 반론, 이에 대한 비평자의 재반론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전개되기도 하였다³⁾. 심재기(2006)는 이를 두고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서 번역비평은 자칫 인신공격으로 오해될 위험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문학번역도 여기서 예외는 아니어서 『영미 명작, 좋은 번역을 찾아서』나 『최고의 고전 번역을 찾아서』 모두 머리말에서 이와 관련된 부담감을 토로하고 있다.

이 글은 향후의 문학번역 평가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모색하려는 시도이다. 평가 기준을 제시하겠다는 목표는 없다.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번역 평가 기준을 제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작업이라 보기 때문이다. 문학번역의 평가 기준은 원문에 대한 충실성과 번역문 자체의 가독성이라는 두 가지로 수렴되는 경향이고 여기에 반론을 제기할 생각은 없다. 다만 이 글은 문학번역

토하는 단계에서는 비슷한 개념으로 한꺼번에 다루겠다.

- 2) 이 시리즈는 고전 번역 비평에 앞서 2003년과 2004년에 연재되었던 것으로 번역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룬 글이 적지 않았다.
- 3) 그 예로 조광제의 ‘메를로 폰티의 『지각의 현상학』에 대한 유감’(2003년 3월 10일자)과 류의근의 ‘반론: 교수신문 261호 조광제 박사의 『지각의 현상학』 서평에 대한 유감’(2003년 3월 17일자), 2003년 12월, 인터넷 서점 ‘예스24’와 ‘알라딘’에 게재된 진태원의 서평에 대한 이경신의 ‘반론: 진태원 씨의 지적에 답한다’(2004년 2월 25일자)와 진태원의 ‘데리다의 『불량배들』 국역본의 문제점’(2004년 2월 26일자)을 들 수 있다.

평가에서 고려해야 하는 점, 특히 이제까지 간과되었다고 판단되는 점을 몇 가지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포괄적인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 문학번역은 외국어 문학작품의 한국어 번역, 그리고 도서로 출판된 번역 범주로 국한됨을 밝혀 둔다.

2. 문학번역 평가에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2.1. 문학작품의 번역인가, 번역된 문학작품인가.

문학 전공자들의 번역 평가를 읽으면서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은 문학번역 결과물이 가지는 위상이다. 문학번역 결과물은 ‘문학작품의 번역’인가, 아니면 ‘번역된 문학작품’인가.

번역평가사업단(2005/2007)은 총론에서 충실성과 가독성이라는 두 가지 평가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p.21/p.22).

- * 충실성(faithfulness): 번역문이 원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절하게 번역했는가를 판단하는 영역으로 단어, 구절, 문장 등에서 부정확하거나 부적절한 번역의 빈도나 정도를 판별한다.
- * 가독성(readability): 번역문의 우리말 구사 수준을 판단하는 영역으로 대개 문장 차원에서 어색하거나 생경하거나 비문인 정도가 어떠한지를 판별한다. 다만 번역자가 의도적으로 낯선 역어나 구문을 선택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역자의 선택을 존중한다.

하지만 각 작품별 번역본 분석 내용을 살펴보면 충실성 기준에 대부분의 내용이 할애된다. 원 작품의 단어, 구절, 문장이 제대로 이해되었는지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다. 이는 번역평가사업단이 ‘문학작품의 번역’이라는 입장에 치중한다는 느낌을 준다. 번역은 원 작품이 가진 문체와 상징을 고스란히 반영하는 게 우선이 되고 따라서 종속적인 지위를 가져야 한다는 입장 말이다.

이러한 경향은 『최고의 고전 번역을 찾아서』(2006)도 다르지 않다. 비평 대상인 총 23 작품 가운데 문학으로 분류 가능한 일곱 작품⁴⁾에 대한 비평 내용을

보면 원문에 대한 충실성, 충실한 직역, 원문 전달, 충분한 각주 등이 강조되고 있다.

문학 전공자를 비롯한 전문가 독자들이 일반 독자에 비해 출발 텍스트와의 관련성 규범과 관련된 지적, 다시 말해 충실성과 관련된 지적을 더 많이 한다는 점은 이상원(2006, p.90)에서 이미 지적된 바 있다. 이는 문학 전공자의 번역 평가가 애초부터 원 작품의 문학적 구조와 가치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데 대한 안타까움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다음과 같은 신수송 외(2002)의 지적은 문학 전공자들의 충실성 편향 성향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준다.

과우스트는 다른 작품들과는 달리 오늘날 한국의 독자에게 그 문화적, 역사적 거리가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두 가지 이상의 버전이 동등한 권리로 필요해 보인다. 하나는 전문가나 전문적 지식을 요구하는 독자를 위한 원전에 충실한 번역이고 다른 하나는 일반 독자를 위한 의역적 번역이다.

여기서 ‘의역적 번역’이라 지칭된 것은 번역된 ‘문학작품’이라고 바꿔 부를 수 있을 듯하다. 번역 결과물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 문학작품으로 다루어지는 것이다.

박혜주 외(2007)에서는 번역된 ‘문학작품’이라는 시각을 강조한다. ‘문학 현상이 발생하는 현상이 고립된 텍스트 내에서가 아니라 텍스트와 독자 사이의 변증법적인 교류현상 속에서이기 때문’(p.17)이라고 설명하며 베르만(Berman)⁵⁾을 인용하여 ‘원어가 아닌 원문의 메아리가 울리도록 번역이 되어야 한다’(p.21)고 주장하는 것이다. 문학번역에서의 변증법적 교류 현상은 원작이 아닌 번역된 문학작품과 한국인 독자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따라서 문학번역 결과물을 독자적인 문학작품으로 간주하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을 견지한다면 원문을 기준으로 하여 문학번역 결과물의 단어,

4) 이는 ‘두보 시선’, ‘이백 시선’, ‘삼국지연의’, ‘수호전’, ‘아큐정전’, ‘설국’, ‘마음’이다.

5) A. Berman, 'Tranduction littéraire, scientifique et technique(문학, 학술, 기술 번역의 차이)', Actes de colloque international organisée par l'Association européenne des linguistes et des professeurs de langues, p.14, éd. La Tilu.

구절, 문장을 뜯어보고 옳고 그름을 논하기는 어렵다. 문학작품에 대한 접근이 그러하듯 나무보다는 숲을 중심으로 하게 될 것이다. 번역자가 번역을 통해 만들어낸 문학작품에 대해 논의하는 것, 이는 세부적인 오류지적에 경도된 현재의 문학번역 평가 관행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다. 또한 번역 평가는 곧 번역자에 대한 인식공격이라고 인식되는 상황도 개선시킬 것이다.

그렇다면 문학작품으로서의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번역의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는 반론이 나올지 모른다. 그런 번역은 평가 대상으로 삼지 않으면 어떨까. 출판되어 시장에서 소비되는 번역본이라면 이미 그 자체로 최소한의 요건은 충족시킨 것이고 나름의 존재의미를 갖는다고 가정하면 어떨까. 이들 번역본에 대해 끊임없이 트집을 잡고 결함을 들추는 목적은 무엇인가. 오역시비에 휘말린 최근의 소설 ‘다 빈치 코드’가 그 이후에도 많은 독자들에게 애독되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는 ‘번역된 문학작품’이 가지는 존재의미를 반증하지 않는가.

2.2. 문학번역 평가는 오류분석을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는가.

번역 평가는 오류분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는 문학번역도 예외가 아니다. 신수송 외(2002)는 이와 관련해 ‘국내에서 상대적으로 번역 연구가 저조한 이유는 번역 연구의 과제를 흔히 오역비평으로 설정하고 이를 회피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원문의 내용이 어떻게 부정확하게 이해되어 불분명하게 옮겨졌는지를 찾아내 ‘고발’하고 평가자가 생각하는 ‘정확하고 분명한’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이 번역 평가의 대세를 이루고 있다.

번역평가사업단(2005, 2007)의 작업도 여기서 예외는 아니다. ‘무분별하고 부실한 번역서를 포함한 다양한 번역본들의 홍수 속에 (연구자를 포함한) 독자가 아무런 지침 없이 내던져진 형국’에서 ‘좋은 번역본을 선택하는 길잡이’로 활용되기 위해(2005, p.13) 우수 번역본을 추천한다는 목표 하에 한 작품의 다양한 역본에서 나타나는 오류를 비교 분석하고 가장 오류가 적은 역본을 추천본으로 선정하였기 때문이다. 각 역본은 1-6등급의 판정을 받았고 추천본에 해당하는 1-2등급 역본은 전체 검토본 중 8-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번역평가사업단(2007)이 제시하는 전형적인 오류분석 사례는 다음과 같다 (p.46).

44장에서 조지(George)가 노예해방증서를 나누어주자 노예들이 보이는 반응, 즉 “We don't want to be no freer than we are”(616면)은 “우리들은 이제부터 자유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우리는 지금 보다 더 자유로워지고 싶지 않습니다”로 번역해야 맞다. 조지가 노예들을 해방시키면서 하는 말, 즉 “I shall pay you wages for your work, such as we shall agree on”(616면)은 “난 이제부터 정한 대로의 급료를 여러분들의 일에 대하여 치를 작정이야”(437면)에서는 급료를 서로의 동의하에 정할 것이라는 의미가 빠져있다. 그러므로 “난 서로의 동의하에 정할 급료를 여러분의 일에 대해 치를 작정이요”로 번역하는 것이 맞다.

원작의 문장들과 역본 문장들을 비교하고 문제점을 지적한 뒤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을 확인할 수 있다.

오류 분석 중심의 번역 평가는 특정 번역이 얼마나 문제가 많고 수준이 낮은지 보여주는 데 효과적이다. 번역평가사업단(2005, 2007) 뿐 아니라 강대진(2004), 이재호(2005) 등 오류 분석을 중심으로 한 번역 평가 서적들이 주목받으며 커다란 충격과 파장을 몰고 온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가 가능하다.

하지만 오류 분석에는 아쉬운 측면 또한 존재한다. 가장 먼저 그 분석 단위가 지나치게 미시적이라는 점이 문제이다. 번역평가사업단(2005, 2007)에서 나타나는 오류 분석의 단위는 단어와 구문, 문장을 넘어서지 않는다. 전문 비평가들의 번역 비평 내용을 요약하여 번역 텍스트의 용인성 확보 요건을 정리한 전현주(2006)에서 텍스트 내적 차원의 요건이 개념어와 핵심어, 원문 문장과 문단의 형태 유지, 원문 문장 부호의 유지로 나타난 것⁶⁾도 미시적 접근 방식을 반

6) 비평 전문지 「안과 밖」의 ‘번역을 짚어본다’, 교수신문의 『최고의 고전 번역을 찾아서』에 실린 문학번역 비평 16편, 비문학번역 비평 11편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다. 텍스트의 내적 용인성 확보를 위한 요건을 그대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번역 텍스트의 내적인 용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첫째, 역자는 어휘 번역시 작품 이해의 밑거름이 되는 개념어와 핵심어 번역에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지나친 한자어 사용을 자제하고 ST에 대한 배경지식 부재에서 오는 어휘 번역의 오류를 지향해야 한다. 둘째, 역자는 문장과 문단의 길이와 관련하여 가능한 ST의 형식을 따르지만 가

영한다. 한편 인터넷을 통해 표출된 익명의 일반 독자 번역비평을 정리한 이상원(2006)에서도 단어와 구문 중심의 오류 분석이 압도적으로 많다.

미시적인 오류를 지적하는 것은 가장 손쉬운 번역 평가 방법이다. 평가자는 역본을 다 읽어볼 필요조차 없다. 일부(번역평가사업단의 경우에는 10%)를 택해 문장 별로 원문과 대조한 후 오류를 찾아내면 되기 때문이다.

문학번역자는 문장 단위로 작업하지 않는다. 문학텍스트 전체를 한 덩어리로 두고 포괄적인 입장에서 단어나 표현을 조정한다. 원문에서 동일한 대상이 다양하게 표현되는 경우 번역자의 판단 하에 통일시킬 수 있다. 원문에서 담긴 여러 상징들의 상대적 비중을 판단하여 강조하거나 축소시킬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체의 극히 일부분을 대상으로 단어와 문장을 비교하고 ‘이 잡듯이’ 오류를 찾아내는 것이 정당한가?

오류 분석이 남기는 두 번째 아쉬움은 분석자의 ‘위에서 내려다보는’ 태도이다. 다시 말해 분석자는 정답을 알고 있고 번역자가 과연 그 정답을 제대로 맞혔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본다는 태도이다. 그리고 분석자만이 알고 있는 정답까지도 ‘친절하게’ 제시한다. 이는 2-1.에서 언급했던 ‘문학작품의 번역’과 일맥상통하다.

특정 단어나 문장이 번역될 수 있는 대안은 무궁무진하다. 그 어느 대안도 정답은 되지 못한다. 각 대안에 대한 판단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문학번역자는 자기 이름을 내건 번역본에서 나름대로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여 번역한다. 그 대안이 평가자가 생각하는 최선과 다르다고 하여 오류라고 지적한다면 평가자가 내놓은 대안 또한 마찬가지로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태도로 이루어지는 오류분석 평가는 문학번역자의 반발만 사기 십상이라는 점에서도 문제이다. 잘못을 꼬집는 데 반가워할 사람은 없다. 문학번역 평가의 본래 목적은 당근이 아닌 채찍인가? 오류의 개수대로 역본들을 줄 세우기 하여 뒤쪽에 있는 역본 및 그 번역자를 퇴출시키는 것이 목

독성을 고려하여 문장은 어느 정도 분할이 가능하지만 문단은 원문의 구분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역자는 번역 전략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 모양은 같지만 기능이 다른 문장 부호(영문과 한글의 세미콜론이나 콜론) 혹은 가독성에 방해가 되는 경우 등 예외는 인정하되 되도록이면 ST의 내용을 구두점까지도 가감 없이 번역본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표인가?

2.3. 평가자와 번역자의 번역관은 같은가, 다른가.

서두에 언급했듯 번역평가의 기준은 크게 충실성과 가독성으로 수렴되는 경향이다. 하지만 이 두 가치를 모두 충족시키는 번역은 드물다. 번역자 자신이 어느 한쪽에 보다 기울어지는 성향을 가지기 쉬운 것이다. 또한 연령이나 지적 수준이 다양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도서로 출판되는 번역이라는 상황 요인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교수신문의 ‘최고의 번역본을 찾아서’ 시리즈에 실린 김성일(2007)을 보자.

무엇보다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역자들이 등장인물의 호칭을 종종 원문과 다르게 번역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안나의 남편을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라고 이름과 부칭을 사용하여 부르는 경우와 그냥 ‘카레닌’이라고 성만 부르는 경우이다.

전자는 예절바르거나 점잖음의 뉘앙스를 함축하는 호칭인데 반해 후자는 보다 공식적이거나 일반적으로 부르는 호칭으로서... 이 두 호칭 사이의 뉘앙스 차이는 서술자와 대상 간의 심리적 거리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완전히 다른 문맥적 의미와 느낌을 전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결코 간단히 무시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이다.

번역평가자는 러시아어 인물 호칭이 가지는 뉘앙스 차이를 강조하면서 원문에서 동일인에게 서로 다른 호칭이 사용되는 경우 이를 그대로 번역문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충실성에 편향되어 있다. 그리고 몇 가지 의문을 남긴다. 번역문에서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와 ‘카레닌’으로 호칭을 그대로 옮겨놓았다고 해서 한국 독자들이 호칭 간의 뉘앙스 차이를 알아차릴 수 있을까? 오히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누구이고 ‘카레닌’은 누구인지 혼동하는 사태를 불러일으키지는 않을까? 그렇다면 원문의 호칭을 그대로 살려준 후 일일이 역주를 달아 그 호칭을 누구를 의미하는지 명확히 하고 뉘앙스까지 설명해야 하는 것일까?)

7) 이런 문제 때문에 최근에는 인물 호칭을 하나로 통일하고 대신 어휘나 종결어미 등

위 사례의 번역자가 충실성이 아닌 가독성을 중심으로 하는 번역관을 가지고 작업했다면, 그리하여 의도적으로 호칭 번역에서의 충실성을 포기하는 전략을 선택했다면, 이를 충실성에 편향된 평가자가 ‘무엇보다도 큰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충실성과 가독성 문제는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이다. 학자들마다 견해도 제각각이다. 김효중(2002)은 ‘문학번역에서는 번역이 번역으로서 차지하는 비중보다는 번역 그 자체를 특징짓는 번역자 자신의 독특한 문체와 해석 의도가 더 중시된다’라며 가독성의 손을 들어주었고 손지봉(2006)은 ‘문학번역 평가기준은 두 단계로 정확한 의미 전달이 우선시되고 부차적으로 문학적 특성을 살려야 한다’며 충실성에 비중을 두고 있다.

번역자의 성향 역시 다양하다. 번역평가사업단(2005, 2007)에서는 번역의 불충실 문제가 주로 제기 되었지만 번역 비평과 그에 대한 번역자의 답변을 정리한 이상원(2006)에 따르면 독자들은 보다 도착 텍스트 지향적인 반면 번역자는 보다 출발 텍스트 지향적이라고 한다(p.170). 다시 말해 독자들은 번역문의 가독성 문제를 주로 지적하고 이에 대해 번역자는 충실성으로 번역문을 정당화한다는 것이다.

번역자가 나름의 번역관을 가지고 작업한 결과물에 대해 정반대의 번역관을 가진 평가자가 자기 기준을 적용해 평가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아귀가 맞지 않는다. 연구자마다 번역자마다 번역관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특정 번역관을 틀린 것으로 상정해 평가하기도 불가능하다. 결국 번역 평가의 첫 단계에서 번역자의 번역관은 무엇이고, 평가자의 번역관은 무엇인지를 밝히고 차이를 존중하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2.4. 평가자에게는 어떤 평가 능력이 필요한가.

문학번역에 번역 능력이 필요하듯 문학번역 평가라는 작업에도 평가 능력이 요구된다.

박혜주 외(2007, pp.33-36)는 한국 문학작품의 외국어 번역본을 평가할 때 평가자에게 어떠한 능력이 필요한지를 정리하고 있다. 여기서 제시된 평가 능

의 다른 수단으로 뉘앙스를 전달하는 러시아 문학번역이 일반적이다.

력은 번역 방향만 바꾸어준다면 외국 문학작품의 한국어 번역 평가에 그대로 적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학번역 평가자에게 요구되는 능력을 정리해 보면 다음 표와 같다.

〈번역자의 번역 각 단계를 평가하기 위해 요구되는 평가자 능력〉

문학번역 과정	각 단계를 평가하기 위해 요구되는 능력
외국 문학 텍스트 이해 단계	외국어 이해 능력 외국 문학 이해 능력 외국 문화 이해 능력
전환 단계	번역자의 선택에 대한 평가 능력
한국어 문학 텍스트 재생산 단계	한국어 이해 능력 한국 문학 이해 능력 한국 문화 및 독자 이해 능력

번역 과정은 원문 이해 - 전환- 재생산이라는 Nida & Taber(1969)의 3단계를 따르며 1, 3단계는 각각 언어, 문학, 문화의 차원으로 능력을 구분하였다. 즉 외국문학 텍스트 이해 단계를 평가하려면 평가자 또한 언어, 문학, 문화에 대한 이해 능력을 갖춰야 하고 한국어문학 텍스트 재생산 단계를 평가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언어, 문학, 문화 및 독자에 대한 이해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한국어에 대한 이해 능력은 단순히 의미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 문체와 뉘앙스를 포함한 포괄적인 이해를 의미한다. 한국 문학에 대한 이해 능력 및 한국 문화 및 독자에 대한 이해 능력은 번역 결과물이 문학작품으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있는가, 또한 한국 문화와 독자를 고려했을 때 수용가능한가 하는 문제와 관련해 요구된다. 2단계의 전환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번역자의 선택에 대한 평가 능력이 필요하다. 다양한 가능성 중에서 번역자가 선택한 대안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판단하는 능력이다.

이 모든 능력을 갖춘 평가자는 사실상 찾기 어렵다. 박혜주 외(2007, p.38)에서도 모든 능력을 충족하는 유일한 평가자는 문학번역가 뿐이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평가자 능력 규명의 의의는 완벽한 평가자를 찾는 데 있다기보다

각 평가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중점 평가 영역을 파악하는 데 있다고 봐야 한다. 이를 기준으로 본다면 번역평가사업단(2005, 2007)이나 『최고의 고전 번역을 찾아서』(2006)에서 평가를 맡은 외국문학 전공 교수들은 1단계에 필요한 능력, 즉 외국어 이해 능력 및 외국 문학 이해 능력이 탁월한 평가자들이었고 이에 따라 1단계 번역에 치중된 평가를 했다고 말할 수 있다.

2.5. 문학번역 결과물은 온전히 번역자가 책임져야 하는 것인가.

앞서 이 글의 문학번역은 도서로 출판된 번역으로 한정할 바 있다. 문학번역 평가와 관련해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하는 점은 문학번역 결과물이 번역자와 편집인, 교정교열 담당자의 합작품이라는 것이다.

번역자가 작업을 끝내고 출판사에 넘긴 번역 결과물은 통상 초교-2교-3교로 이어지는 세 차례, 많은 경우 네 차례의 교정교열 과정을 거친다(이상원, 2007). 교정교열은 외주 전문가가 맡기도 하고 출판사 내 편집인이 담당하기도 한다. 문제는 교정교열 단계에서 번역자와 의견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편집인이 일방적으로 번역물을 대거 수정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데 있다. 번역자에게 제대로 통보조차 하지 않은 채 이루어지는 이러한 수정 관행은 박여성(2002)과 심재기(2006)도 지적한 바 있다.

그렇다면 교정교열에서 주로 어떤 방향의 수정이 이루어지는 것일까. 이에 대해 분명히 답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상원(2007)에서 교정교열 전문가들이 맞춤법과 띄어쓰기 오류 수정하기와 문장 다듬기를 주로 한다고 응답한 것이나 이상원(2006, p.42)에서 편집인들이 ‘독자가 읽기에 가장 편안한 번역’, ‘제대로 말이 되어서 읽히는 문장’ 등을 강조하여 언급한 것으로 미루어볼 때 한국어의 가독성 향상에 초점이 맞추어질 것이라는 추측은 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문학번역 결과물이 온전히 번역자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교정교열의 결과가 가독성을 향상시키기는커녕 번역자가 동의할 수 없는 어휘 및 표현 변경으로 텍스트를 개악한 것이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지 않은가⁸⁾. 이와 관련해 심재기(2006)는 번역서에 대한 최종 책임이 출판사에 있다는

8) 이는 연구자를 포함해 번역서 출간 경험이 있는 이들이 적지 않게 경험하는 상황이다.

독일 비평가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일반적으로 번역자는 최종 번역문을 제출한 다음 출판사의 요청에 따라 몇 차례 수정 및 교정 작업을 한다. 번역자도 모르게 출판사와 편집자만의 합의 하에 텍스트를 조정하여 번역서를 출판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해 번역자는 숙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에서 독일 문학비평계의 제왕으로 군림하고 있는 마르셀 라이히-라니츠키(Marcel Reich-Ranicki) 같은 경우, 번역 비평은 곧 출판사 비평이어야 하며 번역서에 관한 최종 책임을 출판사가 져야 한다는 주장을 줄기차게 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이를 문학번역에 대한 번역자의 책임 면제로 해석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전적인 책임을 요구받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3. 평가에서 비평으로

이상으로 문학번역 평가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 다섯 가지를 짚어 보았다. 그 다섯 가지는 크게 문학이라는 장르의 특수성, 번역 평가 작업에 수반되는 요소, 출판물로서 충족시켜야 하는 특징으로 대별될 수 있다. 이 각각에 대해서는 추후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서두에서 이미 언급했듯 문학번역 평가가 활발하다는 상황 자체는 대단히 고무적이다. 소통이 시작된 것이다. 이제 과제는 소통을 바탕으로 번역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있다. 그리고 여기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여기서 제안하고 싶은 것은 평가에서 비평으로의 방향 전환이다. 지금까지 이 글에서는 각각의 인용출처를 존중해 평가와 비평이라는 용어를 혼용해 왔다. 하지만 표현은 다를지라도 현재의 상황은 번역 평가라는 용어에 걸맞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번역 평가와 번역 비평은 어떻게 다른가?)

9) 번역평가사업단(2005, 2007)은 ‘우리의 1차적인 관심은 본격적인 번역비평이라기보다는 그 비평의 대상으로 삼을 만한 번역본들을 걸러내는 기본적인 수준에서의 평가’라고 밝힘으로써 이 글과 근본적으로 견해를 함께 한다. 하지만 전체 분량의 10%를 대상으로 한 오류 분석이 비평 대상 선정 방법으로 적합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번역 평가는 교육 현장에서 학생의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혹은 번역능력검정시험에서 응시자의 수준을 판별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작업이다. 호니히(Hönig)(1998)는 교육과정에서 번역품질평가가 중심적인 과제가 된다고 하면서 번역품질평가는 1) 교사의 권위를 수립하거나 훼손하고 2) 학생에게 동기부여를 하거나 낙담시키고 3) 번역자 교육의 방법론을 규정하고 4) 번역자, 번역 소비자, 고객이 어떤 번역을 ‘좋은’ 번역으로 생각하는지의 기준을 세운다고 하였다.

반면 번역 비평은 번역 현장에서 일하는 번역자를 대상으로 하며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분석을 위주로 하는 작업이다. 뉴마크(Newmark)(1980, p.181)는 번역비평이 필요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1) 번역 수준 향상
- 2) 번역자에게 객관적인 학습 기회 제공
- 3) 특정 시대, 특정 영역에서 나타나는 번역관 조명
- 4) 탁월한 작가 및 탁월한 번역자의 작품 해석 보조
- 5) 원문과 번역문 사이의 의미적 문법적 차이에 대한 비판적 평가

번역 평가로 같지, 번역 비평으로 같지를 결정하는 것은 번역 결과물과 번역자에 대한 태도이다. 학생에 대한 선생의 태도를 선택한다면 번역 평가가 될 것이고, 번역 결과물과 번역자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선택한다면 번역 비평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인정과 존중의 태도라면 미시적인 차원의 오류를 꼬집거나 정답을 알려주는 일도, 줄 세우기를 통해 상대적인 우열을 가리는 일도 없을 것이다.

번역 비평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원본과 번역본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번역 연구자 자신의 관점과 해석 방법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고 또한 ‘정역과 오역이라는 이분법의 척도를 떠나 원본과 번역본의 차이를 문화적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보는 기술적 연구방법을 택할 것’을 제안하는 신수송 외(2002)를 참고하고 여기에

남는다.

앞서 언급한 고려 사항을 포함시킨다면 대략적인 그림은 그려볼 수 있다.

문학번역 비평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 1) 문학번역 결과물에 문학작품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한다.
- 2) 문학번역 텍스트의 일부가 아닌 전체를 비평 대상으로 삼아 거시적으로 접근한다.
- 3) 비평자의 번역관을 밝히고 평가능력을 바탕으로 비평의 초점을 명확히 한다.
- 4) 문학번역 텍스트를 통해 번역자의 번역관을 파악하고 이를 번역 비평에 반영한다.
- 5) 오류를 찾아내고 대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번역자의 전략을 분석한다.
- 6) 도서 출판을 위한 번역의 경우 그에 따른 특성을 고려한다.

번역 평가에서 번역 비평으로 옮겨간다면 수준 미달의 문학번역이 판을 치는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반론도 나올 수 있다. 번역 수준의 향상은 채찍이 아닌 당근을 통해 이루어진다. 문학번역에 대한 비평적 접근이 활성화 되어 문학번역 전략과 방법론과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양질의 번역 결과물에 대한 분석이 실행된다면 이는 현 문학번역자 및 미래의 문학번역자들에게 교육적 효과를 발휘해 장기적으로 문학번역 수준 향상으로 귀결될 것이다.

참고문헌

- Hönig, H .G. 1998. "Positions, power and practice: functionalist approaches and translation quality assessment", in Schaffner, C. (eds.). *Translation and quality*. pp. 6-34. Multilingual matters.
- Newmark, P. 1980. *Approaches to translation*. Oxford, Pergamon.
- Nida, E. A. & Taber, C. R. 1969. *The theory and practice of translation*. Leiden, E.J. Brill.

- 강대진. 2004. 『잔혹한 책읽기』 서울, 작은이야기.
- 교수신문 엮음. 2006. 『최고의 고전 번역을 찾아서』 서울, 생각의 나무.
- 김성일. 2007. 「원문의 미묘한 뉘앙스 전달 못해. 고전번역비평-최고의 번역본을 찾아서 59 톨스토이 ‘안나 카레니나’」 『교수신문』. 2월 5일.
- 김효중. 2002. 「번역 이론의 관점에서 본 영랑 김윤식의 예이츠 시 번역」 『어문학』 78: 259-284.
- 박여성. 2002. 「번역비평을 위한 번역 파라디그마의 효용성: 연구 시안(4)-권터 그라스의 ‘양철북’과 한국어 번역본을 중심으로」 『2002년 한국독일어문학회발표논문집 독일어문학: 번역과 수용』 53-72.
- 박해주, 여건종, 이상원, 최미경. 2007. 『문학번역 평가시스템 연구』 서울, 한국문학번역원.
- 손지봉. 2006. 「문학번역 평가기준에 관하여」 『국제회의 통역과 번역』 8(1): 87-106.
- 신수송, 윤미애, 최윤영, 최성만. 2002. 「문화 수용과 문화전이로서의 번역 - 괴테, 카프카, 토마스 만 작품의 한국어 번역 연구」 『독일언어문학』 18: 259-299.
- 심재기. 2006. 「한국문학의 외국어 번역에 대한 국내 번역비평의 동향」 『독일언어문학』 34: 237-266.
- 영미문학연구회 번역평가 사업단. 2005. 『영미명작, 좋은 번역을 찾아서』 서울, 창비.
- 영미문학연구회 번역평가 사업단. 2007. 『영미명작, 좋은 번역을 찾아서 2』 서울, 창비.
- 이상원. 2006. 『한국출판번역 독자들의 번역평가규범 연구』 서울, 한국학술정보.
- 이상원. 2007. 「출판번역의 교정 교열」 『국제회의 통역과 번역』 9(1): 73-85.
- 이재호. 2005. 『문화의 오역』 서울, 동인.
- 이정수. 2006. 「문학번역의 양식과 기교에 관한 연구 - 한국단편소설의 영역을 중심으로」 『새한영어영문학』 47(2): 181-212.
- 전현주. 2006. 「번역 텍스트의 용인성: 번역 비평가의 관점을 중심으로」 『번역학 연구』 7(2): 179-205.

[Abstract]

From error analysis to criticism on literary translation

Lee, Sang Won
(Seoul National University)

Nowadays into-Korean-translations of foreign literary works are frequently assessed in articles, books and newspapers. It is a positive phenomenon because active feedback from readers contributes to improving the quality of translation.

But it is disappointing that the main focus of assessment has been to find translation errors and failures. Discussions on the translation of foreign literary works need to be changed from error analysis to criticism.

This paper deals with several points, which should contribute to the a forementioned paradigm shift: translation of foreign literary work is a literary work itself, not a copy of foreign literary work; translation error analysis is too microscopic; beliefs about what is 'good' translation can differ between translators and assessors; assessors may not have the necessary capabilities to assess translations; revision work done by publishing companies has to be considered in translation assessment.

▶ Key Words: into-Korean-translations of foreign literary works, translation assessment, criticism on translation, error analysis

이상원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강의교수

denise@hanmail.net

관심분야: 출판번역, 번역비평, 문학번역, 번역전략

논문투고일: 2008년 5월 13일

심사완료일: 2008년 6월 8일

게재확정일: 2008년 6월 17일